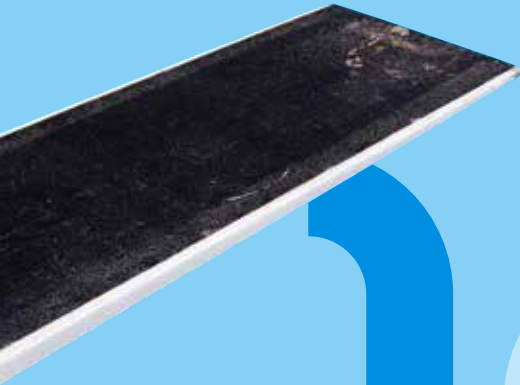


스포츠원 **SPORTS1**

2022 08 | VOL.74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첫 세계대회 개최

CONTENTS



우리나라 다이빙의 새 역사를 쓰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다이빙 선수 최초 결선 진출,
2020 도쿄올림픽 4위 등의 기록을 세우며
결출한 선수로 우뚝 선 우하람 선수.
'할 수 있다'보다는 '당연히 잘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이빙 종목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우하람 선수를 응원합니다.

SPORTS 1

2022 08 | VOL.74

발행인 이기홍 회장

편집인 박춘섭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8월 18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접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KSOC & SPECIAL

04 포토에세이

06 THEME TOPIC ①

우리 아이들의 체육시간을 지키기 위해...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을 돌아보며

12 THEME TOPIC ②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은 의무로 선택과목에 넣어야 한다

16 THEME REPORT

2022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



KSOC & SPORTS

- 18 **ZOOM IN**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스포츠 교육
2022년 스포츠인 종합 교육과정
- 24 **HERO OF GENERATION**
최초이자 최고로서 더 크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치다
다이빙 국가대표 우하람
- 28 **SPONOMICS**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가치와 후원의 중요성
- 30 **TECH INSIGHT**
수학·물리학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당구'
- 34 **GLOBAL SPORTS PRISM**
틱톡,
전 세계 스포츠 팬의 시간을 '순삭' 하다
- 36 **월드 스포츠7330**
인간 새의 공중 유평
그 무한한 자유로움을 쫓다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
- 40 **학교야 체육하자!**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체육 인재를 양성하다
구미 오상고등학교



KSOC & TREND

- 44 **NEW NORMAL & SPORTS**
MZ세대의 청춘,
바디프로필로 기록되다
- 46 **SNS 라이브**
무더위 날리는 시원한 처방전! 대한체육회TV 시청하기
현장 스케치, 실시간 생방송
- 48 **가볍게 스포츠**
선수 유니폼에 부착된
아라비아 숫자의 비밀
- 50 **가볍게 여행**
한여름 오싹 시원한 여행지
무더위야 가라!
- 52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4 **KSOC NEWS**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에 있다.”
스위스의 저명한 교육자 요한 페스탈로치가 남긴 말입니다.
체육은 책임과 배려, 공정의 마음을 익히게 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체육 활동이 외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全人的) 발달을 위해
체육시간이 지켜지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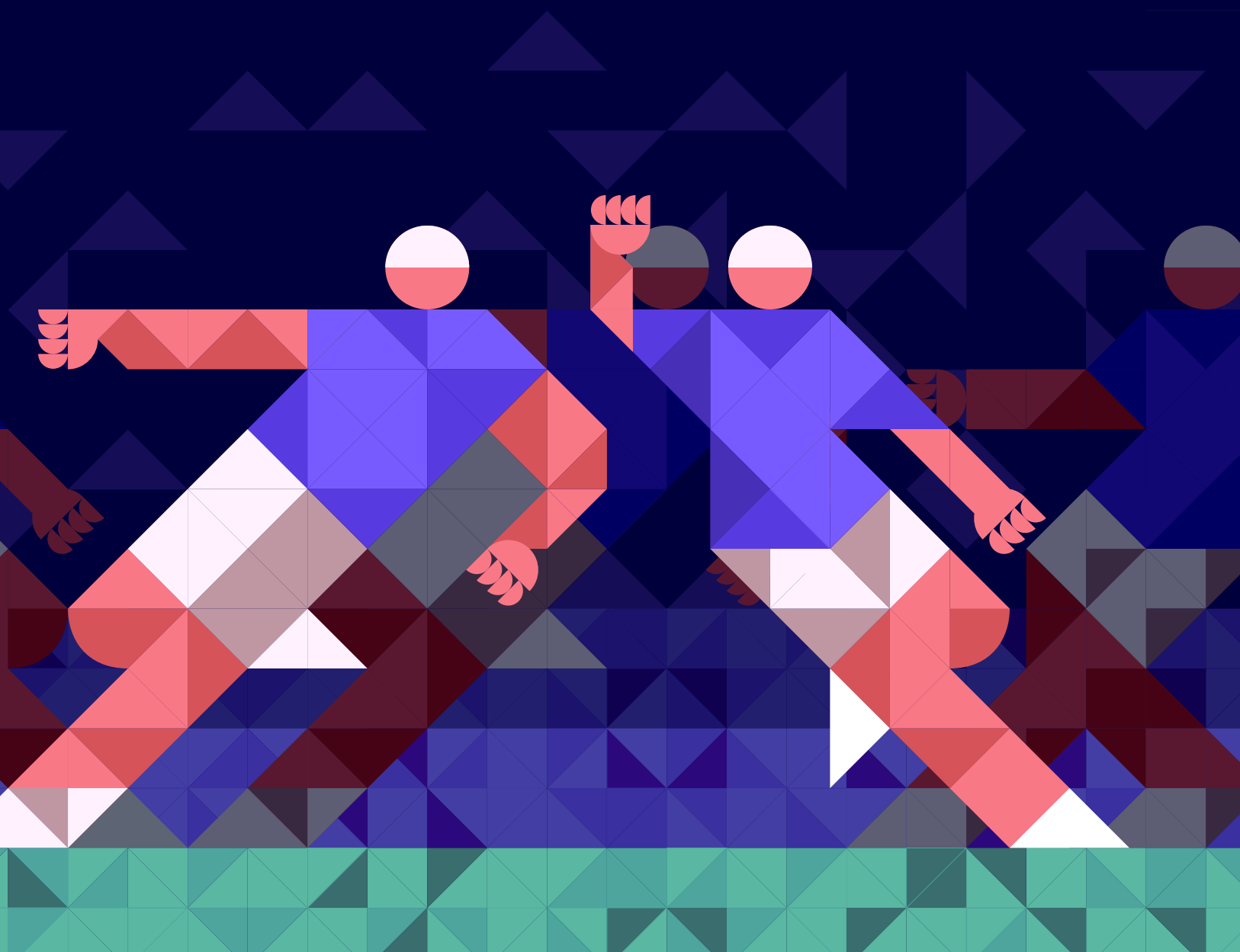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의 체육시간을 지키기 위해...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을 돌아보며

글. 조남기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대한체육회는 7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 정부 원년에 학교체육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및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아이들의 체육시간을 지키기 위한 마음과 생각을 나눴던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을 복기한다.



들어가며

많은 이의 관심 속에 개최된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운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뤄진 순환기·호흡기 계통의 질환 및 건강 관련 연구부터, 최근에 이뤄진 뇌 관련 신경과학 연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다뤄져 왔다.

그런데 필자는 ‘운동-건강’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이러한 공식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시되어 오히려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 왔다. “운동해야 뇌가 건강해집니다”, “근육을 늘려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순환기와 호흡기 건강 개선에 있어 운동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들레의 많은 사람에게 할 때마다 매번 듣는 대답은 “저도 아는데 최근에 시간이 만만치 않네요.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이거나 “우리 애가 요즘 (공부)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대학 진학 후 하겠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황리에 치러진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혹은 그 연령대에 있는 우리 유·청소년 학생들의 ‘학교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과 학교체육에 관심이 깊은 국회의원, 정부 인사,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체육 관계자, 체육유관단체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발제는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유·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체육의 절대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고, 담론의 실천적 방안에 대한 맺음말로 마무리됐다. 올해 하반기 교육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체육을 지키기 위한 현장 체육교사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이날의 주요 발제 내용을 소개한다.

본론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 주요 발제 내용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은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의 ‘학교체육정책 개선과 시행을 새 정부에 요구한다’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김택천 위원장은 2022년 교육부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배정한 예산 중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은 불과 0.018%에 불과함을 짚으며 그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행정부의 예산 배분과 정책 입안에서 학교체육이 얼마나 소외돼 왔는가를 보여 주었다. 더불어 학교체육이 학생의 현



- 1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 위원장,
- 2 이승배 안산 화성초 교사,
- 3 김기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4 조종현 평촌고 교사,
- 5 김종우 서울체고 교감,
- 6 조남기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위원



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과 성취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소외되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배 안산 화성초 교사는 ‘초등 1·2학년 체육교과를 독립 운영해야 한다’는 주제로 초등 1·2학년 ‘체육·음악·미술 통합교과’로 운영해온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인 ‘즐거운 생활’에 체육이 포함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어 왔는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또한 “왜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이 분리·독립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해보자는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기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스포츠활동으로 별도 운영해야 한다’는 발제를 이어갔다. “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중학교 학생들의 공식 비교과 활동인 ‘동아리활동’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체육교과에 흡수되어 확대된 시수의 체육교과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종류의 동아리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동아리활동’ 내에서 분리·독립 운영하거나 정규교과인 학교체육에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의 함양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해 보였다.

고등학교 체육과 관련해서는 조종현 평촌고 교사가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체육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진정한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학생 선택에 대한 존중’이 이뤄져야 하며 체육교과를 포함하는 다양한 교과 제시에 더해 <체육 I, 체육 II> 또는 <체육(건강과 체력), <체육(여가와 레저)>, <체육(개인 및 소수 단체 스포츠)>, <체육(5인 이상 스포츠)>, <체육(뉴스포츠)>, <체육(기타)>과 같은 다양화·세분화 및 심화된 체육교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종현 교사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각 학교의 환경과 현실을 반영해 그 확대의 폭이 정해질 수밖에 없지만 ‘선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려면 적어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체육교과’가 학년별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에 의해 선택된 체육교과가 ‘입시’나 ‘행사’ 등의 이유로 방해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선수 관련해서는 김종우 서울체고 교감이 ‘지속가능한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종우 교감은 ‘학생선수에게 선택 다양성

제공'이라는 당위성에 더해 학령인구 감소, 종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과 비용, 그에 따른 학교운동부 존폐 여부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에 따른 학교 내 운동부와 학교 밖 스포츠클럽의 공존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교내 및 교외에서 이뤄지는 학생 활동(학생선수의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학생 선택권 존중', '현실 여건 반영', '상호 경쟁' 등과 같은 당위적 명제는 학교 내 운동부와 학교 밖 스포츠클럽 공존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기초와 기본에 충실, 학생의 자주적 선택권 보장!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의 발제들은 주제도 다르고 대상 학생도 다르지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는 상통했다. 바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와 '학생의 자주적 선택은 성취의 중요한 전제이며 실천되어야 한다'이다. 4·5년 전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떠올랐다. 생활체육의 적극적인 실천이 갖는 의료비용 감소 규모가 최소 몇 천억 원에서 몇 조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초등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할 때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어찌될지 심히 우려된다. 비록 당장 그 폐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뒤를 생각하면 경악하거나 한탄할 만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 무척 두렵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때에도 "체육을 너무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가 해야 할 일(공부)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체육시간을 줄여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학부모를 만나거나 "체육은 대학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학생, 동료교사, 학교 관리자를 만날 것 같은 예감이다. "혹시 우리는 오늘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패배적인 생각이 머리 한 편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도 필자의 불안을 가중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의 정답은 하나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체육인 모두의
정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과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

나가며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필요

필자는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들의 성공뿐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제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그간 우리는 운동이 갖는 다양한 장점을 홍보해 왔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알려왔다. 최근에 뇌 과학이라 불리는 신경과학의 다양한 결과를 통해 운동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지 능력 향상에 대해서도 홍보해 왔다. 건강, 체력, 비만 등과 같은 주제를 통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다.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의 대화 소재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집에 가면 여전히 부모는 운동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학교에 가면 체육시간이 다른 교과 시간과 학교행사에 밀려나곤 한다. 이는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그 공감대가 얇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이 절대 필요합니다”라는 공감대를 어떻게 학생·부모·동료교사·학교 관리자 그리고 정책 입안 및 행정가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간 알려 왔던 건강, 비만, 체력, 뇌 이야기에 더해 인성 함양을 좀 더 추가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학교체육 활성화 위해 모두의 관심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자리한 질문과 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번 포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다행히 시작이 미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걱정과 달리 많은 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심 어린 마음과 생각을 나누었기에 창대한 결론의 옷자락 끝이라도 볼 수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유·청소년들에게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의 정답은 하나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체육인 모두의 정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과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포럼의 발제와 같이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천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전략도 함께 논해야 한다. 같이 가면 외롭지도 않고 힘듦도 덜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가 그 힘든 길을 기꺼이 함께해 줄 것을 기대한다. **SPORTS1**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은 의무로 선택과목에 넣어야 한다

글.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 기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고교는 교육 과정 편제표를 수정하고 있다. 그런데 줄어든 국·영·수 등 입시과목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체육 등 다른 과목 시수를 줄이는 추세다. 이전에 주당 2시간씩 체육수업(12단위 편성)을 진행한 학교조차도 이수 단위를 10단위로 축소하고 있다. 12단위가 배정되면 학기별 체육수업은 주당 2시간씩, 3년(여섯 개 학기) 동안 유지된다. 그러나 10단위로 줄면 1·2·3학년 중 한 개의 학년(두 개 학기)은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든다.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필수 이수 학점’과 ‘자유 이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필수 이수 학점은 학생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학점으로 전체 학점 중 48% 안팎을 차지한다. 자유 이수 학점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점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학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선도학교 등 1,000여 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개선의 과정을 거친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성패, 선택과목 다양성에 달렸다

교육부는 ‘학생 성장 중심 고교 교육’, ‘자기 주도형 인재 성장’ 등 문구로 고교학점제 의미를 부여했다.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선택과목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다양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들어가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은 일정 인원(보통 15명) 이상의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개설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부모·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가 학생의 수요를 근거로 선택과목 프로그램을 제시한 뒤 지역 교육청과 협의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면 선택과목이 만들어진다.

겉보기에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선택과목조차 입시과목 중심으로 꾸려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짙다. 교사도 많고 대입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과목이 선택과목 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입시과목이 선택과목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의창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는 “고교학점제 대의는 모든 학생의 개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과 편식 식단을 짜서 학생들의 교과 영양실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택과목 결정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선택과목 선정 과정은 ‘학생 수요 조사 →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제 → 학생의 능동적 수강 신청’ 등으로 진행된다. 일단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가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선택과목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학생 수요를 조사하지도 않고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임성철 체육교사(운산고)는 “고교생이 선택교과로서 체육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벗어난다”며 “이는 체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선택과목 선정 관련 교육부 지침도 미흡하다. ‘다양한 과목이 선택과목에 개설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이다. 일선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과목에 자의적으로 배제해도 제어할 근거가 없다.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학교 재량이다. 학교 교사들이 체육을 선택과목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지금은 체육을 선택과목에 넣지 않으려는 학교가 훨씬 많다. 선택과목 목록을 교사들과 교장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데는 위법성이 있다. 국·영·수·탐 등 입시과목 교사들의 기존 권력을 지키려는 이기심, 그리고 다수 입시과목 교사들과 잘 지내며 입시 중심 일반고를 만들려는 관리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체육 교사의 목소리는 쉽게 무시될 수밖에 없다. “선택과목은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교육부 방침이 예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셈이다.

체육의 선택과목 의무 배정을 위한 노력

체육이 선택과목에 ‘의무’ 배정되려면 지금처럼 선택과목 결정에 대한 ‘사실상 전권’을 일선 학교장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이 영성한 상황에서 모든 걸 일선 학교에 맡기면 체육은 입시과목 중심 교육에 밀려 선택과목에서조차 살아남기 힘들다. 결국, 선택과목 배정에서 체육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하소형 체육교사(상주여고)는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 방침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라며 “지역 교육청 방침에 ‘체육이 선택과목에 무조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과목에 대한 선택과목 개설을 권고한다는 교육부 지침도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방침이 이같이 바뀌면 일선 학교는 따를 수밖에 없다. 조종현 체육교사(평촌고)는 “선택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먹을 것 없는 뷔페라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말로 다양성이 결여된 선택과목제를 비판했다.

학교는 선택과목 결정에 앞서 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학생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인원 이상 학생들이 체대 입시 실기, 트레이닝법 수업을 원한다면, 체육 교사들은 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이후 체육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다수 입시과목 교사, 학교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체육이 선택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육이 선택과목에 들어가려면 체육교사들의 강한 열의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체육교사와 학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사들의 밥그릇 싸움과 힘겨루기, 교사들이 잘 보여야 승진할 수 있는 조직 논리, 국·영·수 중심의 대입 방식 등에 밀려 체육수업시수는 줄고 있다. 선택과목에서도 체육이 존재감을 잃을 가능성도 적잖다. 이에 대해 전국체육교사모임 등 체육교사 단체 8곳은 최근 ‘고교 전 학년 체육수업 주당 2시간 이상 보장, 학생들의 체육 과목 선택권

학교가 체육을 선택과목에

의무적으로 넣어야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교육부·교육청·학교는

다양한 체육수업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 역량을 키워야 한다.



보장, 체육 시설 확충'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영·수 중심 입시제도 때문에 체육수업시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 선택과목에 체육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주장했다.

체육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설문조사도 발표했다. 고교생 1,2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육의 선택과목 존재 여부를 모르는 학생이 41.4%에 달했다. 체육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도 30.2%에 이르렀다. 배기호 체육교사(소하고)는 “설문조사에 응한 고교생 중 40%가 학교 체육수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운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2.8%가 체육수업은 주당 3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중·고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869명 중 80% 안팎이 “운동이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주당 4시간 이상 운동시간이 할애돼야 한다고 답한 부모도 60% 안팎에 이르렀다.

이처럼 학생과 부모는 체육수업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교육청·학교는 체육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과목을 자율이 아니라 ‘의무’로 선택과목에 넣어야 한다. 학교가 체육을 의무적으로 넣어야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교육부·교육청·학교는 다양한 체육수업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 역량을 키워야 한다. 타 학교와 공동 수업 진행, 능력 있는 외부 인사 초빙 등도 고려해야 한다. **SPORTS1**

태릉선수촌에 모인 초등학교 선생님들

2022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

글. 편집실

8월 3일, 태릉선수촌이 평소와 다르게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매년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체육과목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체육수업이 더욱 재미있고,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2022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를 소개한다.





실기 중심의 전문 연수로 초등교원의 체육 과목 지도력 향상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태릉선수촌에서 2022년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가 개최됐다. 초등교원의 체육 과목 지도력 향상을 통해 실제 체육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국에서 모인 초등교원 38명이 참가했다.

이번 체육연수는 이론 강의 5시간, 실기 10시간 등 총 1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체육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체조, 배구, 플라이디스크, 육상, 양궁 종목의 이론과 실기 수업이 병행됐다. 종목별 이론 시간은 종목의 이해, 경기 규칙, 다양한 장비 활용 및 수준별 학생 지도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 등으로 꾸러졌다. 실기 시간은 기초 동작 및 수준별 지도 방법, 다양한 경기 운영법 등을 익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이은경 감독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수 지도자로 참가해 수업의 현장감을 더욱 높였다.

특히 이번 체육연수는 종목별 올바른 지도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범과 실기 중심의 전문 연수로 진행되어 참가 초등교원들로부터 체육수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체육연수를 통해 초등교원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신장되어 학교체육이 더욱 재미있고, 알찬 시간으로 꾸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는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8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교원들이 참가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PORTS1**

2022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 주요 프로그램



글. 편집실

대한체육회는 건강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인을 육성하고자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다채롭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온라인 교육에서 집합 교육 및 실습 위주로 방식을 변경하고, 교육의 효과를 고려해 커리큘럼을 더욱 고도화했다.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2022년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스포츠 교육

2022년 스포츠인 종합 교육과정



스포츠행정가과정

스포츠행정가과정은 지난 8월 9일, 체육단체 직원 대상 ‘스포츠행정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온라인 줌 특강을 시작으로 입사 연차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세부과정에 따라 교육 목표가 상이한데 초급과정은 체육 행정 업무 기초 소양, 직무 역량 교육을 통한 직무 적응 및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중급과정은 실무 능력 향상 및 스포츠 환경 이해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고급과정은 체육행정 리더로서 경영 관리 및 리더십, 네트워킹 역량 제고를 목표로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행정가과정에 걸맞게 행정가의 역할과 책임, 공문서 작성법, 경영전략 수립, 조직문화 개선 및 성공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특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체육단체 직원 (체육회, 종목, 시도)	300명	1	8. 9.(화)	온라인 줌	-

초급과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체육단체 신입 직원 (입사 2년 이내)	20명	17	8. 17.(수)~19.(금)	숙박, 2박 3일	대전 KT인재개발원

중급과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체육단체 직원 (입사 2~10년 미만)	20명	17	8. 17.(수)~19.(금)	숙박, 2박 3일	대전 KT인재개발원

고급과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체육단체 실부장(팀장) (입사 10년 이상)	20명	9	8. 30.(화)~31.(수)	숙박, 1박 2일	현대 블루비스타



강사역량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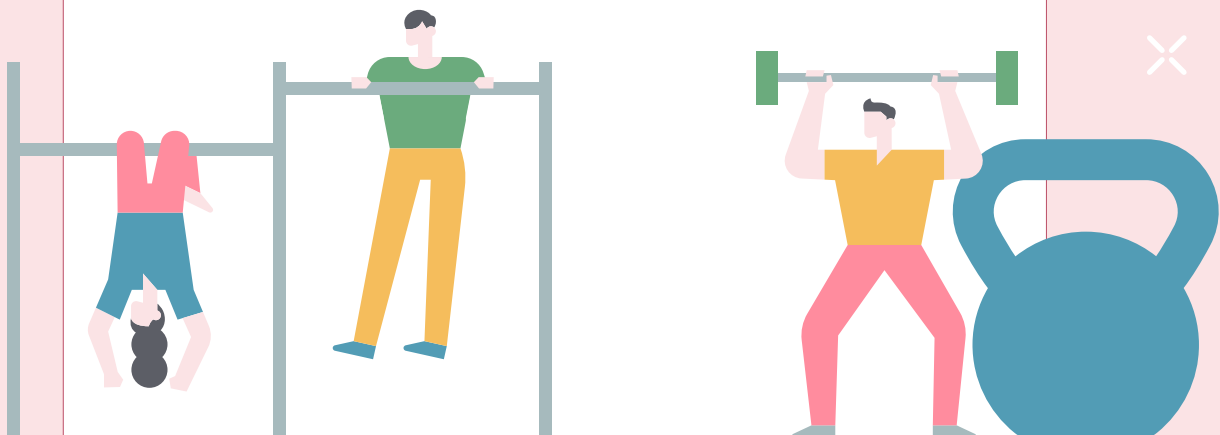
강사역량개발과정은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의 경력 여부에 따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교육한다. 기본과정은 초임 강사 활동에 필요한 기초 소양 함양 및 강의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심화과정은 직무 전문성 강화를 교육 목표로 한다. 교육은 맞춤형 교안 및 콘텐츠 기획 구성법, 대상자 특성별 교수법 이해, 교육생 참여 제고 방법 등 강사 활동에 필요한 강의 능력 배양을 위한 내용 등으로 이뤄진다.

기본과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경기인, 스포츠행정가 출신 강사 희망자	40명 (20명×2회)	12	9. 15.(목)~16.(금) 9. 22.(목)~23.(금)	출퇴근,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심화과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1~5년 강사 경력자	20명	13	9. 29.(목)~30.(금)	출퇴근,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지도자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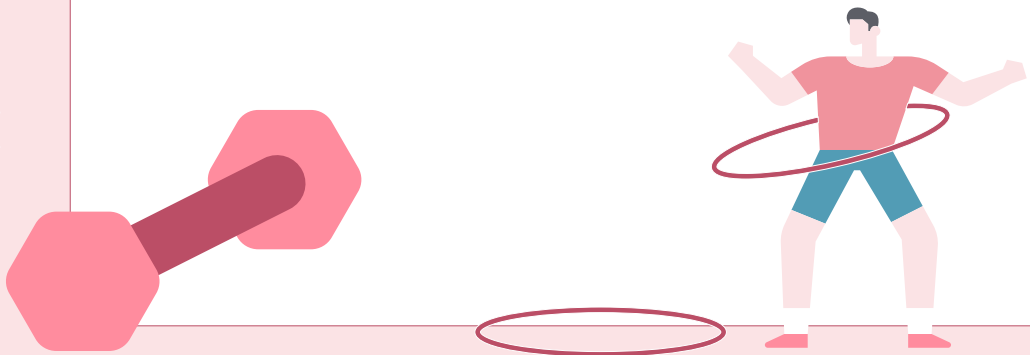
지도자과정은 전체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전문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과정을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지도의 기본 스킬뿐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 커리어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코칭과정은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 및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코칭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지도자의 역할과 덕목, 훈련 계획 수립법, 컨디셔닝, 경기 분석법 등 세부과정에 맞춰 지도자가 함양해야 할 기본 지식을 교육한다.

코칭과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전문체육지도자 (10년 이하 지도자)	20명	17	9.5(월)~7.(수)	숙박, 2박 3일	대전 KT인재개발원

기초과정

대상	인원	시간	일정	방식	장소
전체지도자	100명	5	9.26(월)~11.25(금)	온라인	-



대한체육회는 ‘통합형 커리어 개발로 스포츠인의 자발적 성장 도모’, ‘선진 스포츠인 교육 생태계 구축’, ‘선순환 교육 중심의 교육연수프로그램 추진’이라는 3대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바른 소양과 전문 역량을 갖춘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향후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등을 통해 체육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SPORTS1**

1886 첫 세계대회 개최

다이빙의 역사

· 다이빙의 시작

다이빙은 스웨덴과 독일의 기계체조 선수들의 공중모기 연습에서 시작됐다. 이후 18~19세기 스웨덴과 독일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 커저간 인기

19세기 후반 스웨덴 다이빙 선수들이 영국을 방문해 보여준 다이빙 경기가 큰 화제가 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01년 아마추어 다이빙 협회라는 첫 번째 다이빙 기구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 올림픽 역사

다이빙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다. 스프링보드와 플랫폼 경기는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들은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부터는 참가하게 됐다.

힘찬 도약,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공중회전, 고요한 입수의 3단계 동작으로 이뤄진 다이빙은 어딘가 체조를 닮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영 종목에 포함된 다이빙은 독일과 스웨덴의 기계체조선수들이 안전하게 공중요기를 연습하기 위해 플랫폼이나 스프링보드를 설치해놓고 물로 뛰어든 것이 시초였다. 이후 점차 발전해 1886년 독일에서 첫 세계대회를 개최하며 경기화됐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다.

중력가속도와 싸우는 스포츠, 다이빙의 시원(始原)



글. 편집실 장소 협조 다온나 필라테스&PT

우하람 선수는 탄성 넘치는 모습으로 튀어 올라 기계처럼 절도 있는 모습으로 공중회전을 선보인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불필요한 동작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다이빙 저변이 넓지 않은 국내에서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실력이었다.

부상으로 잠깐 쉬는 동안 더 높이, 더 빠르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우하람 선수의 능률한 모습이 공개되었다.

다이빙 국가대표 우하람

최초이자 최고로서 더 크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치다

재활을 이겨내며 힘을 더한 다이빙계의 신성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 최초로 다이빙 결선에 진출해 11위를,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거머쥐고, 2019년 세계선수권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4위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우하람 선수의 허리 부상 소식이 알려진 것은. 무엇보다 6월 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우하람 선수 본인의 실망이 컸다.

“5월달부터 조금씩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치료와 훈련을 병행했어요. 그런데 대회 직전 주말에 마지막 훈련에 임했는데, 심한 통증이 찾아오더라고요. 도저히 대회에 나갈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포기하고, 이후에는 재활 훈련에 계속 매진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재활 훈련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다시금 다이빙 훈련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작년까지 5년간 체력훈련을 담당했던 윤현석 전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허리와 엉덩이의 근력을 키워냈다. 오히려 근육 운동도 꾸준히 병행한 덕분에 부상 전에 비해 15kg 이상 체중을 증량하면서 한층 힘을 키웠다. 통증은 줄어들고, 힘은 강해졌으니 힘들었던 만큼 우하람 선수는 더욱 성장한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제가 지금까지 내왔던 성적이
최초이긴 하지만, 진짜로 최초
타이틀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운 한편,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

최초라는 타이틀에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우하람 선수가 처음 다이빙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수업 때였다. 생소하고, 특이하다는 이유로 끌려 선택한 다이빙이 장래 희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점프와 낙하, 입수까지 고작 1초에서 3초의 찰나에 자신의 기량을 펼쳐야 하는 스포츠에 대한 끌림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이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당시 홍명희 코치는 우하람 선수에게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권유했고, 곧 이 뛰어난 안목은 우하람 선수의 눈부신 성적으로 증명되었다.

우하람 선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다이빙 선수 최초 결선 진출, 2020 도쿄올림픽 4위 등의 기록을 세우며 걸출한 선수로 우뚝 섰다. 그런데 막상 수많은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그는 자신이 이뤄낸 결과에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내왔던 성적이 최초이긴 하지만, 진짜로 최초 타이틀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운 한편,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이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1m 스프링보드와 3m 스프링보드에서 모두 4위에 오르며 한창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때, 코로나19가 터졌다. 올림픽을 위해 몸을 만들어왔던 컨디션이 한 차례 꺾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마땅히 훈련할 만한 장소도 찾기 어려웠다. 국가대표 합숙이 없는 시기에는 다이빙 훈련도 하지 못해 체육관에서 체력훈련만 해야 했다. 그러니 메달을 목표로 올림픽에 나섰지만 훈련량도 박자감도 부족했고, 대회 직전까지도 감을 잡지 못했다. 그나마 4위라는 대기록은 기존에 해왔던 훈련이 빛을 발했기에 가능했다.

“2020 도쿄올림픽 4위라는 성적 자체에는 만족했지만 그 내용이나 과정은 불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하던 만큼 동작들이 안 나왔고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첫 메달의 기회를 노렸던 우하람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운 결과였을지 모르지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이빙 종목에서 메달권인 선수가 나왔다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다이빙에 대한 관심도 모였다.



‘할 수 있다’보다는 ‘당연히 잘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이빙 선수에게 있어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다. 아무리 연습 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컨디션이 좋았다고 해도 막상 대회에 나가서 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다이빙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의 동작을 선보이면서도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하람 선수는 마음가짐만으로도 다이빙 선수가 되기에 충분했다.

‘할 수 있다’보다는 ‘당연히 잘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그만큼 훈련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이 자만심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훈련했습니다.”

우하람 선수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도 다른 선수들보다 매일 1시간씩 더 오래 남아서 훈련할 정도로 독종이었다. 게다가 미련하고, 우직하게 운동하는 타입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동작을 골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타입이다 보니 다른 선수보다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었다.

이제 제대로 몸과 마음을 모두 갈고 닦아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우하람 선수는 다시금 자신의 유일한 목표인 올림픽 메달을 위해 다이빙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 낯선 종목에서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탄생해 우리를 놀라게 할 날이 머지않았다. **SPORTS1**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가치와 후원의 중요성

글: 홍진배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스포츠창업지원센터장

우리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물했던 스포츠 스타들이 최근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선한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다. 이들의 친근한 이미지, 전문성과 신뢰성,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는 대중들에게 호의적으로 전달되고, 이는 스포츠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한다. 스포츠 스타들의 경제적 효과와 후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 스포츠 스타의 경제 효과 얼마나 될까?

스포츠 스타의 국내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스타로 평가받는 타이거 우즈를 들 수 있다. 그가 재기 후 2019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이른바 '우즈 효과'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TV 시청률은 전년 대비 69%나 뛰었고, PGA 챔피언십 티켓은 20만 장 이상 팔렸으며, 대회 인근 지역까지 끼친 경제 효과는 1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타이거 우즈의 추락과 함께 골프용품 사업에서 철수했던 나이키는 그의 마스터스 우승과 동시에 한정 광고를 게재해 다시 한번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골프용품 후원사인 테일러메이드와 브리지스톤의 글로벌 매출액은 급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말 손흥민 선수가 창출한 경제 파급 효과는 1조 9,885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유럽 축구 시장에서 그의 가치 1,206억 원, 대유럽 소비자 수출 증대 효과는 3,054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6,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59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느낀 감동과 자긍심, 유소년 동기 부여 등 무형의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매출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의 몸값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현재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의 광고 출연료는 2019년 10억 원에서 2022년에는 약 80억 원으로 4년 동안 8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인 트랜스퍼마크트는 2021년 12월 기준 손흥민 선수의 시장가치를 8,000만 유로(약 1079억 원)로 추산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00만 유로)의 시장가치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은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훌륭한 홍보대사이며, 기업들은 이들을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세계의 많은 기업이 스포츠 스타들을 자사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용품 후원, 훈련 및 대회 참가 후원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평가받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KB금융의 후원은 기업의 스포츠 스타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KB금융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과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은메달을 거머쥔 '김연아 효과'로 KB국민은행이 2014년 출시한 예금 상품을 한 달도 안 돼 3,000억 원 한도를 전액 소진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김연아는 선수 시절부터 KB와 후원 관계를 이어왔고, KB와의 브랜드 연상도가 높아 KB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기업은 순수하고 공정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스토리와 긍정의 이미지는 후원 기업의 이미지를 동반 상승시켜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 ● 다양한 종목에서 스포츠 스타 육성 위해 노력할 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스포츠 스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스포츠 스타 육성에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후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프로 스포츠처럼 대중적인 인기 종

목에 더욱 관심이 있겠지만 이제는 스펙트럼을 확대해 다양한 종목과 선수 육성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후원이 단기적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큰 재목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후원한다면 이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을 때 기업의 후원 효과는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다. 특히, 비인기 종목과 선수에 대한 후원은 기업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초·중·고 대학의 운동부들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인기 종목은 선수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비인기 종목이었던 양궁이 국내 기업의 헌신적인 후원과 투자로 세계 최고의 명품 'K-스포츠'로 발전되었고, 수많은 양궁 스타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행히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아마추어 스포츠 유망주들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앞으로 스포츠는 문화·예술·관광·IT 등의 산업과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경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그 핵심에 바로 스포츠 스타가 존재한다. 스포츠 스타의 발굴과 육성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스포츠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후원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떨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SPORTS1*



수학·물리학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당구’



글. 편집실

당구는 탄성과 회전, 힘과 각도 등 과학적 계산이 필요한 스포츠다. 그래서일까. 프랑스 과학자 코리올리(Gustave Gaspard Coriolis)처럼 당구대 위의 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도 많다. 연구는 아니더라도 당구를 더 재밌게 즐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구에 대한 간단한 상식과 물리 법칙 몇 가지만 알아두자.



① 국민 스포츠 당구의 발전과 종목

당구는 규격화된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공을 놓고 큐(Cue)라고 부르는 막대기로 쳐서 룰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다. 당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는 몇 해 되지 않았다. 과거 당구장은 다소 칙칙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클럽 금연법」이 시행되며 환경이 쾌적하게 바뀌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 당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당구연맹은 클럽에 속하지 않고 당구를 즐기는 사람을 포함한 국내 당구 인구를 약 1,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에도 당구는 최근 1년간 참여 경험이 있는 체육 활동 중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포켓(Pocket)

테이블에 포켓이 있다

- 풀(Pool): 미국식 포켓게임으로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즐긴다.
- 스누커(Snooker): 영국식 포켓게임으로 캐롬보다 1.5배 가량 큰 테이블을 사용하며, 캐롬의 4구와 포켓볼을 결합한 형태다. 인도·중국·연변방 등에서 주로 즐긴다.



캐롬(Carom)

테이블에 포켓이 없다

- 4구: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 있으며,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다.
- 3구: 친 공을 3회 이상 당구대 쿠션에 닿게 해야 득점이 인정되는 '3쿠션' 방식이다.
- 보크라인(Balkline): 미국·일본 등에서 주로 하며 테이블에 일정한 규격의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② 초크와 팁의 마찰력 원리

당구는 기원전 400년 그리스에서 당구의 원형이 행해졌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졌다. 원형에서 조금씩 발전하던 당구는 19세기에 초크(Chalk)와 큐팁(Cue Tip)이 개발됨에 따라, 단순히 공을 굴리는 수준을 넘어선 다양한 기술이 등장했다. 그 밑바탕에 마찰력의 원리가 숨어 있다. 큐팁은 소가죽 재질로 만들어 큐의 끝부분에 부착하는데 큐와 공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며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큐팁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초크를 묻히면 마찰력이 더욱 증가한다. 본래 큐가 공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곡선 면을 따라 어느 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그런데 큐팁과 초크의 개발 덕에 공과 큐팁의 마찰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고, 공에 회전과 방향 변화를 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당구공과 테이블에 담긴 과학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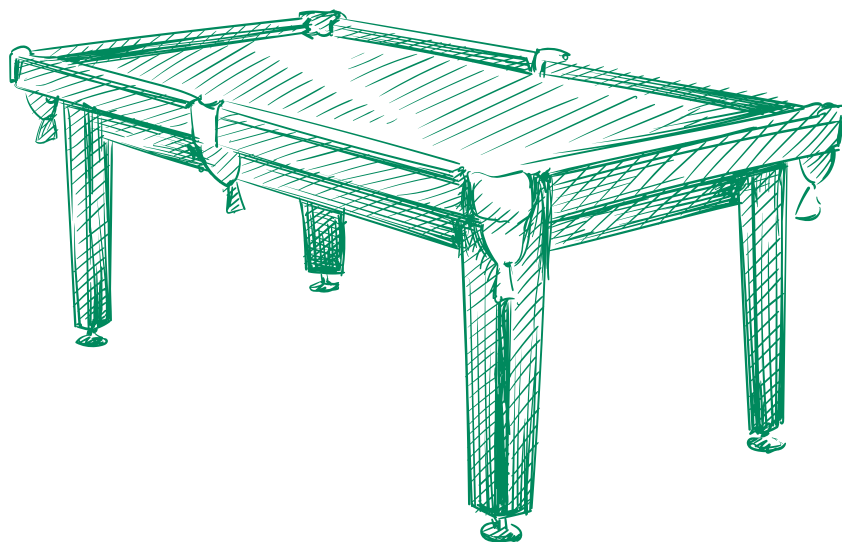
당구공 | 당구공은 경도가 높은 압축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반발계수가 1에 근접한다. 따라서 당구공끼리의 충돌은 전후 운동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완전 탄성충돌'에 가깝다.



쿠션 | 당구대 각 모서리 쿠션은 탄성 있는 고무 재질로 만든다. 쿠션은 당구공의 운동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향을 바꾼 뒤(위치에너지로 변환) 다시 운동에너지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펠트 | 당구대를 감싸는 펠트는 내구성과 마찰력을 고려해 울과 나일론을 섞어 만든다. 펠트는 당구공과 마찰을 일으켜 운동량에 변화를 준다. 공에 회전을 가하면 변화가 더 확실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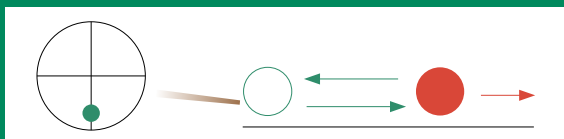


③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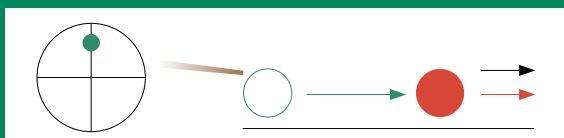
큐팁과 초크 칠까지 이해했다면 원하는 힘과 방향으로 공을 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당구는 공의 각도와 이동 방향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쳐야 한다. 각도의 원리는 이렇다. 친 공이 쿠션으로 들어가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하고 쿠션을 맞고 나오는 각도를 '반사각'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으므로 입사각에 따른 반사각을 계산하면 공의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실제에서는 반사각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온다. 즉, 마찰력과 회전에 의해 반사각에 차이가 생긴다. 이외에도 큐로 공의 어디를 맞추느냐에 따라 회전 방향과 움직임이 달라지므로 공을 치는 부위도 중요하다. 결론짓자면 각도 계산과 적절한 힘의 큐 스트로크, 공의 회전, 경험 등이 어우러져야 최고의 샷을 칠 수 있다.

타점에 따라 달라지는 마찰력과 회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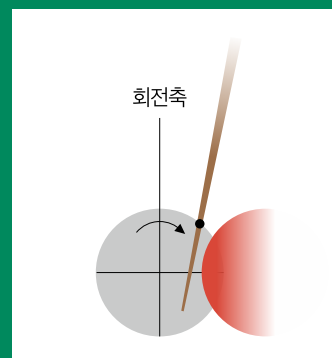
끌어치기 | 큐로 공의 중심 아랫부분을 치면 공은 전진하지만, 회전은 이동 방향과 반대로 걸린다. 따라서 친 공이 목적구와 충돌하면 바닥과의 마찰력에 의해 뒤로 돌아온다.



밀어치기 | 큐로 공의 중심 윗부분을 치면 공은 아래에서 위로 도는 정회전이 걸린다. 공의 회전 방향이 끌어치기와 반대가 되므로 마찰력의 방향도 반대다. 즉, 친 공이 목적구와 충돌한 뒤에도 기존 진행 방향으로 굴러간다.



찍어치기 | 프랑스어 마세(Masse)에서 나온 '맛세이'는 큐를 세워서 당구공을 치는 찍어치기를 말한다. 큐를 수평 방향으로 세워 공을 치는 방법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세워 공을 치는 방법이다. 공에 회전을 주는 바닥과의 마찰력을 극대화해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갈 수 있게 한다.



글. 편집실

스크린 앞에서 혹은 경기장에 방문해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관람하는 것만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은 아니다. 최근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골라 담은 짧은 '틱톡(TIKTOK)' 영상들이 스포츠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유명 구단들은 앞다퉈 틱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팬들을 위한 다양한 영상 제작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틱톡, 전 세계 스포츠 팬의 시간을 '순삭' 하다



짧고 강렬한 숏폼이 대세

틱톡은 15초에서 1분 길이의 짧은 영상, 이른바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다. 2016년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15초에서 1분 길이의 짧은 영상 포맷은 많은 이가 영상을 직접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빠른 호흡의 숏폼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영상 소비문화를 만들었다. 급기야 ‘짧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는 뜻의 ‘숏확행’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틱톡은 서비스 시작 7년여 만인 지금은 가장 많은 이가 방문하는 사이트로 급성장했다. 실제로 인터넷 트래픽 추적 업체 클라우드플레이어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이용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도메인은 1위가 틱톡, 2위는 구글, 3위는 페이스북이었다.

틱톡이 큰 인기를 끌자 다른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들도 ‘숏폼’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그램은 ‘릴스’라는 이름의 숏폼 플랫폼을 내놔다. 네이버는 2020년 숏폼 콘텐츠 에디터 ‘블로그 모먼트’를 선보인 데 이어 2021년에는 관계사 ‘라인’을 통해 숏폼 플랫폼 ‘라인 붐(Voom)’을 출시했다.

짧은 시간 급성장한 틱톡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자에서 사진, 영상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소비 트렌드가 틱톡의 성장 배경이 됐으며, ‘짧은 동영상’을 추구하는 Z세대의 잠재 수요를 틱톡이 잘 파고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포츠 산업에 분 ‘틱톡’ 열풍

스포츠 산업도 틱톡 열풍에 동참하는 추세다. 젊은 팬층의 확보는 곧 막대한 영업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를 들 수 있다. 2019년 9월 NFL은 100번째 시즌 개막을 기념해 틱톡과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식 계정을 통해 시즌 개막에 앞서 #WeReady라는 인앱 캠페인을 펼쳤다. 틱톡 사용자가 좋아하는 NFL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WeReady 해시태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캠페인인데, 각 팀에 대한 자부심을 독려해 팬들을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2021년 2월에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틱톡과 ‘유로 2020’의 글로벌 스폰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UEFA는 유로 2020 기간 동안 관련 해시태그 챌린지, 플레이 리스트, AR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출시했고, 라이브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같은 달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도 틱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식 기자회견, 선수 인터뷰, 경기장 투어, 선수 훈련 모습 등의 콘텐츠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틱톡을 활용한 스포츠 이벤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6월 영국 축구 구단 토트넘 홋스퍼는 틱톡과 손잡고 틱톡 챌린지를 진행했다. 7월 토트넘 방한 일정에 맞춰 한국 팬들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였다. 챌린지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토트넘 선수와의 팬미팅 참석 기회, 토트넘 선수 친필 사인 저자·폴라로이드 사진·유니폼 등을 증정했다. 더불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구단 스타 선수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독점 공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틱톡, 스포츠 산업의 필수 플랫폼

2020년 전 세계 방문자 순위가 7위에서 2021년 1위로 급성장한 틱톡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스포츠 카테고리의 약진이었다. 스트리밍 미디어용 연속 측정 분석 플랫폼 콘비바(Conviva)가 2022년 4월 발간한 보고서 <틱톡 평가 기준 및 전략 가이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기가 상승한 여러 산업 가운데 스포츠 리그 계정이 연 평균 96만 9800명의 신규 팔로워를 확보하며 가장 높은 팔로워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2020 도쿄올림픽 관련 영상들이 큰 화제를 모았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거나 경기 명장면을 담아낸 #도쿄올림픽 해시태그 챌린지가 1억 40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틱톡은 이제 스포츠 산업에서 필수인 플랫폼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하다. 지금이라도 틱톡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이벤트 진행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SPORTS1**



인간 새의 공중 유행 그 무한한 자유로움을 좇다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

글. 편집실

산 정상에 서서 바람을 기다린다. 머리칼을 흔드는 잔잔한 바람이 점점 강해진다. 눈앞의 낭떠러지를 향해 이를 악물고 내달린다. 이윽고 등 뒤 글라이더가 펼쳐지자, 두 발은 허공 위를 내달리고 있다. 무한한 자유로움을 좇아 공중을 유행하는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을 찾았다.

Q 패러글라이딩은 어떤 종목인가요?

더불어 간단한 동호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이란 패러슈트(낙하산)와 글라이더의 장점을 합해 만들어 낸 항공 스포츠로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활강하는 레포츠입니다. 패러글라이더는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 용이성 그리고 행글라이더의 활공성과 속도를 두루 갖춘 이상적인 날개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연의 힘인 바람을 따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모여 1998년에 만들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로는 경인지역 최초였죠. 당시에는 '미추홀패러글라이딩클럽'으로 활동하다가 2000년 지금의 명칭인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으로 개명했습니다. 저는 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기입니다.

Q 회원은 어떻게 뽑고 있나요?

현재 활동하는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다음 카페 '인천패러글라이딩(cafe.daum.net/-icpara)'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가진 경인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죠. 현재 다음 카페 가입 회원은 1,130여 명이고, 비행에 자주 참석하는 우수회원 3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죠. 연령대도 무척 다양해 70대 회원도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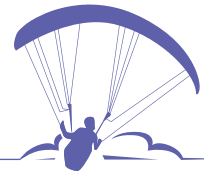
Q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패러글라이딩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해진 정기모임이 있기 보다는 비행하기 좋은 날씨의 공휴일 및 휴일을 활용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 일정이 잡히면 다음 카페에 공지하고 참석 인원을 파악한 뒤 비행을 떠나죠. 이 밖에도 카페 활동과 비정기적인 번개 모임 등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Q 운동 혹은 생활체육으로써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전한 클럽 활동을 위해 어떤 점을 신경 쓰고 있나요

패러글라이딩은 '어렵다, 돈이 많이 든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을 소개합니다

카페 및 온라인 활동

cafe.daum.net/~icpara

동호회 조직일

1998년 ‘미추홀패러글라이딩클럽’으로 창단
2000년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으로 개명 후
현재까지 활동

동호인 수

카페 회원 1,130명, 우수회원 30명

모임 주기

정기 모임: 날씨 좋은 휴일·공휴일

비정기 모임: 곳은 날씨의 휴일·공휴일
막걸릿집

대회 수상

공수특전사령관배, 단양군수배,
친선연합회장배, 영월군수배, 강릉시장배,
보령시장배, 평택시장배 등 다수

비행 기술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죠. 실제로 회원들 중에는 여성이나 60대 이상의 장년층도 꽤 계시고요. 장비도 중고로 구입하면 200만 원 안팎을 예상하면 되는데, 어떤 장비를 골라야 할지 모를 때는 선배 회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죠.

또한 비행 시 클럽 차량으로 이동해 평균 5만 원 정도면 마음껏 비행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비행입니다. 우리 동호회는 비행 전 날씨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비행에 적절한 날씨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Q 혼자가 아닌,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혼자 하기 어려운 생활체육입니다. 혼자서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높은 이륙장까지 올라가는 일도 힘들고, 산에 불시착하는 경우 수습하기도 힘이 듭니다. 또한 장거리를 혼자 이동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동호회와 함께라면 이런 모든 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여러 사람과 함께하며 쌓은 우정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Q 인천패러글라이딩 동호회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즐거움(Fun)’이네요.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비행하면서 모두 날려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을 회원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가하거나,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동호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의 모든 모임은 강요가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됩니다. 또한 다음 카페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더불어 투명한 경영을 펼치고 있는데, 회비는 물론 모든 모임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Q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고 싶은 초보자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분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이유를 대면 차일피일 미룹니다. 하지만 여유는 늘 생기지 않죠.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여유를 찾으면 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인천패러글라이딩클럽을 찾아주세요. 경력 많고 친절한 선배들이 장비 구입부터 안전한 비행 방법까지 조목조목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패러글라이딩을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힘쓸 생각입니다. 더불어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한 비행, 즐거운 비행을 하겠습니다. **SPORTS1**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체육 인재를 양성하다

구미 오상고등학교

글. 편집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에 자리한 오상고등학교는 '감동이 있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오상(五常, 인·의·예·지·신)의 교육 철학 아래 구현,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며 바람직한 체육인 양성에도 애쓰고 있다. 오상고등학교를 찾아 체육 진로·진학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봤다.





Q 오상고등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오상고등학교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해인 1945년 매암 김동석 선생이 민족 진로의 큰 길은 교육입국(教育立國)에 있다는 생각 아래 설립한 오상학원이 모태였습니다. 개교 이래로 오상(五常), 즉 '인, 의, 예, 지, 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 이념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명문 사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찍이 학교 체육의 중요성에도 눈을 떠 우수한 체육 인재 양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에는 골프부를, 2008년에는 축구부를 창단해 국가 대표 선수 및 다수의 프로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저는 오상고등학교에서 예체능 부장을 맡고 있는 유세영 교사입니다.

Q 체육교육과정 특성화(중점)학교를 진행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나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깊이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체육중점학교(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 및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죠. 현재 미래 전문 체육인, 체육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 스포츠 관람(축구·야구·배구), 체육 진로(스포츠 심리·재활 등) 특강, 스포츠 활동 참여(수상스포츠·필라테스·펜싱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인이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육 입시 실기를 지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참여로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죠.

Q 학년별 체육특성화 교육 과정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리 학교의 체육특성화 교육 학급은 2학년 1학급 19명, 3학년은 1학급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운동과 건강(공통) 외에 스포츠 개론, 육상 운동, 체육전공실기기초 등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3학년은 스포츠 생활(공통) 외에 스포츠 경기 실습, 개인 및 대인 운동, 체육전공실기 응용, 체조운동, 스포츠 경기 분석 등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2, 3학년 체육 공통과목 외에 총 8개 과목을 추가 편성해 수업하고 있죠. 체육 교사는 5명으로 총 90시간의 체육수업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체육 중점 수업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체육 중점 수업 외에도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2020년 FIFA에서 주관한 U-20 월드컵에서 한국이 준우승을 차지할 때 국가대표팀 전담 멘탈(Mental) 코칭을 해주셨던 중앙대학교 강성구 교수님을 초청해 스포츠심리 특강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체육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동기 부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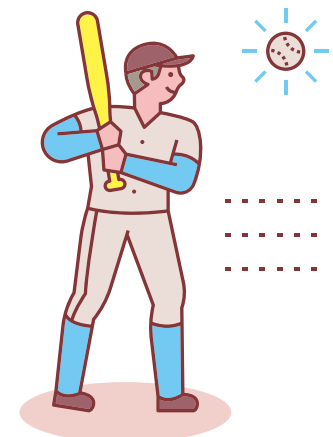
Q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일반학급 학생과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급 학생과의 야간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급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특성화학급 학생들에게 일반교과(국·영·수·탐구 등)를 가르쳐주는 수업인데, 일반학급 학생은 특성화학급 학생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 특성화학급 학생은 부족한 교과 지식을 배울 수 있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이러한 수업은 양쪽 학생과 학부모님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수'라는 말 앞에 항상 '인성을 겸비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전문 운동선수가 순간의 단일한 언행으로 좌절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올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고, 더 큰 선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려주고 있죠.





Q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혹은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였죠. 긴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후 수상스포츠 수업을 진행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자신은 물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장비도 착용했고, 전문 강사분도 계셨기에 그 학생에게 ‘스포츠는 도전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뒤 그 학생이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물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했다며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때의 환한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구미시장배 농구 대회에서 최소 인원을 데리고 우승했던 경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Q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준별 체육수업 진행 및 체대 입시 실기 지도, 관내 중학교 초청 스포츠대회, 학교 스포츠 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학교가 경북지역 체육 진로·진학 선도 학교로서 지역 체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수업을 받으며,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성을 겸비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인성을 겸비한 운동하는 일반 학생’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미래 한국 체육계에 많이 진출하고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PORTS**



가장 건강한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담고 싶은 욕구

바디프로필은 운동으로 만든 균형 잡힌 몸을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뜻한다. 과거엔 전문 보디빌더나 운동선수, 연예인이 찍는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도 자신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꾸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바디프로필 열풍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작됐다.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고, 자기 개발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집에서 운동을 즐기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디프로필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바디프로필 열풍을 주도하는 이들은 MZ세대다.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세대다. 또한 기성세대와 달리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자신을 사회에 드러내는 것에 능숙해 자신에 대한 투자에 과감하고, 누구보다 익숙하다. 그런 MZ세대에게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바디프로필은 무척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울대 심리학과 박금주 교수는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과시욕'을 충족하면서 즐거운 만족감을 누리려는 것이다"라며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 하는 '셀프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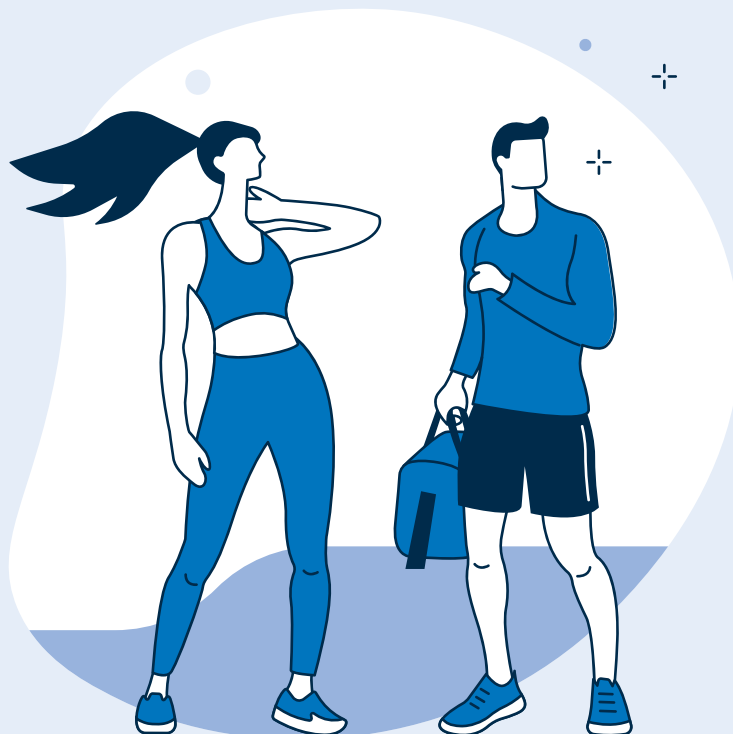
실제로 바디프로필의 인기는 인터넷 검색량으로도 증명된다. 검색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위키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바디프로필' 키워드 검색량은 약 51만 건에 달했다. 검색한 사람의 연령대는 20대가 41.9%, 30대가 28.5%로 전체 검색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MZ세대의 청춘,

바디프로필로
기록되다

글. 편집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바디프로필(Body Profile)'이 큰 인기다. 이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바디프로필을 촬영하는 것을 중요한 버킷리스트로 꼽는다. 이들이 바디프로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 찾기부터

바디프로필은 일반 사진 촬영과 달리 몸을 가꿔야 하므로 짧아도 수개월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젊은 시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사진으로 기록한다는 명확한 목표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고강도 운동과 더불어 식이요법을 병행해 탄탄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높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건강을 챙기고 자기관리까지 할 수 있다.

이렇듯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바디프로필 촬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바디프로필 촬영이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건강한 몸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몸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운동 방법이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바디프로필 촬영을 목표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 무리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하면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거나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목표를 달성한 후 보상심리로 폭식을 하게 돼 요요와 식이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밖에 다이어트 강박증, 운동 중독 등 심리적 후유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바디프로필 촬영 열풍의 시작점은 건강한 몸 만들기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 건강도 챙기고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을 맛보는 시간도 잡아보자. **SPORTS1**

무더위 날리는 시원한 처방전! 대한체육회TV 시청하기 현장 스케치, 실시간 생방송



우리모두 스포츠 기자가 되어볼까요? 대한체육회 취재 수첩 속 이야기 '현장 스케치'

이번 주엔 어떤 스포츠 대회가 열렸을까? 대회 속 놓치기 아까운 정보는 무엇일까? 대한체육회TV '현장 스케치'에는 국내 주요 스포츠 대회부터 종목별 경기까지... 대한체육회가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며 수집한 영상과 알짜 정보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스피드와 각종 묘기를 겨루었던 '제35회 전국남녀종별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태권 최고수를 가렸던 '2022 군산새만금배 전국태권대회 및 제21회 태권 최고수전', 한국 레슬링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전국소년체육대회 레슬링 현장' 등등. 궁금한 내용을 클릭하면 '현장의 기자'가 되어 가장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대한체육회TV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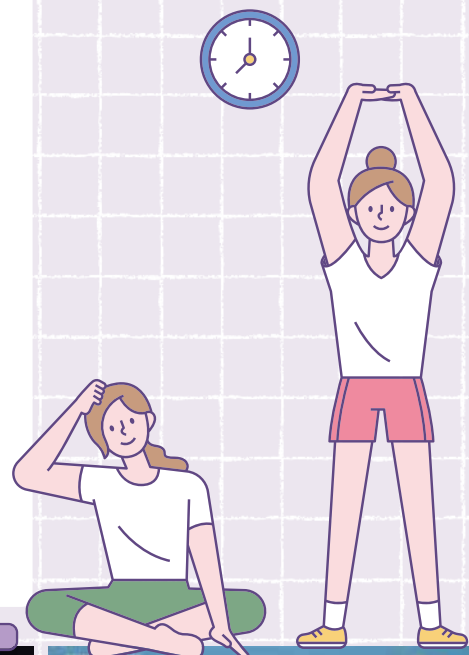
글: 편집실

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잠 못 이루는 긴긴 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대한체육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체육회TV'가 시원한 여름밤을 책임질 짜릿한 스포츠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시간 관람은 기본!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기 가능! 스포츠 현장을 생중계하다 '실시간 생방송'

'찌이잉~' 휴대전화 진동 소리와 함께 날아든 달갑지 않은 소식!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자와 폭염 경보 소식은 더위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잠시 마음을 비우고 짜릿한 스포츠 세상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체육회TV의 '실시간 생방송'에서는 국내 주요 스포츠 대회부터 국가대표
선발전, 대한체육회의 주요 행사 등을 생중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관련 정책 토론회 등 대한체육회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어 진정한 스포츠팬들을 위한 OTT로도 입소문 나 있죠.
그럼 지금 바로 '실시간 생방송' 방송 편성표를 확인해 볼까요? **SPORTS**



글. 편집실

등번호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를 식별하고자 유니폼의
앞이나 뒤에 부착하는 숫자이다.
흔히 뒷면에 부착해
배번(背番)이라고 하거나 영문으로
유니폼 넘버(Uniform Number),
저지 넘버(Jersey Number)
등으로 부른다. 특정 선수의 팬이라면
등번호를 쉽게 외울 정도로
이 숫자가 지닌 상징성은 크다.
그런데 이러한 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선수 유니폼에 부착된 아라비아 숫자의 비밀

등번호는 흔히 단체 경기가 치러지는 스포츠에서 쓰이며 보통 숫자로 표기한다. 선수 분류를 위해 유니폼에 새기는 만큼 반칙 등으로 심판이 선수를 지목할 때 번호를 말하거나 숫자를 수신호로 표현한다. 특히 여러 선수가 엉키기 쉬운 종목일수록 등번호를 크게 새기는데, 선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기록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개인 경기는 등번호 사용이 드물지만, 육상과 같이 사용하는 종목도 있다.



최초로 등번호를 도입한 ‘야구’

스포츠 최초로 등번호를 도입한 종목은 야구다. 1929년 미국프로야구 구단 ‘뉴욕 양키스’가 처음 등번호를 사용했고 이후 다른 종목에서도 이를 도입했다. 당시 뉴욕 양키스의 등번호는 개막전 선발 라인업 순서대로 정해졌다. 이후 야구에서는 기록지 작성 편의를 위해 포지션에 따라 1~9번의 등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수 개인이 선호하는 숫자를 등번호로 사용한다.

등번호에 따른 전통 포지션



투수(P)



포수(C)



1루수(1B)



2루수(2B)



3루수(3B)



유격수(SS)



좌익수(LF)



중견수(CF)



우익수(RF)



등번호의 상징성이 강한 ‘축구’

공식 축구 경기에서 등번호가 처음 쓰인 것은 1933년 에버튼과 맨체스터시티의 FA컵 결승전이였다. 축구 역시 요즘은 선수의 의사를 반영한 등번호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등번호와 포지션을 직접 연관 짓던 대표 종목이었다. 또한 등번호의 상징성이 큰 종목으로 7번은 스타플레이어, 8번은 플레이메이커, 9번은 스트라이커, 10번은 에이스, 11번은 가장 빠른 선수를 지칭하곤 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23명 엔트리에 맞춰 등번호를 1번부터 23번으로 하되, 1번은 반드시 골키퍼가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번호에 따른 전통 포지션



등번호 선택의 자유가 넓은 ‘농구’

농구는 대부분 리그에서 0과 00을 포함해 두 자릿수 이내로 등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에서는 수신호와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1~3번을 제외한 4~15번까지를 선수 등번호로 규정하고 있다. 1~3번을 제외한 이유는 심판이 판정을 수신호로 기록원에게 알릴 때 선수 등번호가 겹치면 혼란스럽기 때문. 한편, 농구 등번호는 포지션과 상관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했다. 등번호는 아니지만, 포지션을 번호로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농구는 포지션의 구분이 점차 떨어져 포지션 번호 사용이 다소 무색해졌다.

전통적인 포지션 번호



한여름 오싹 시원한 여행지 **무더위야 가라!**



광부가 만든 천연 냉장고 **광명동굴**

무더운 여름날 부채도, 휴대용 선풍기도 필요 없는 곳이 있다. 바로 광명동굴이다. 내부 온도는 연중 12도 안팎으로 한여름에도 냉장고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하다. 일제가 1912년 광산으로 개발한 이 동굴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해방 후 근대화·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업유산이다. 1972년에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다가 2011년부터 역사·문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광명동굴은 길이 7.8km로 이뤄진 광산 일부(개방 약 2km)를 관광자원 시설로 꾸몄는데 특이하게 전시장 역할도 겸하고 있어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열린다. 동굴 내부는 환상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다양한 조명과 조형물로 꾸며지며,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웨타 디지털에서 제작한 한정판 피규어들도 만나볼 수 있어 어린이와 나들이하기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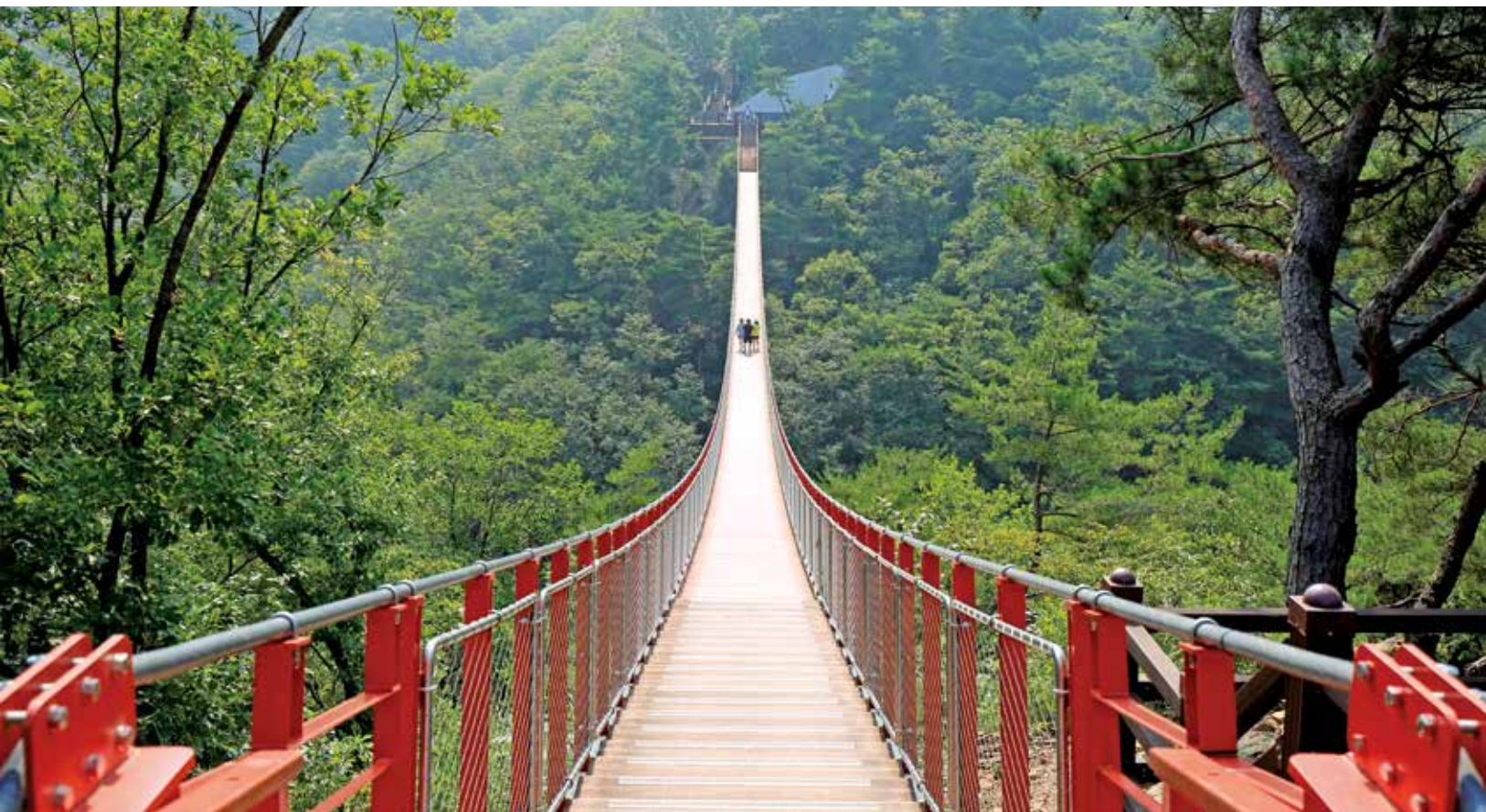
📍 **위치** 경기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 **문의** 070-4277-8902

글. 편집실

‘가마솥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반가운 소식.

일 년 내내 시원한 온도로, 간담 서늘한 체험으로 우리를 반기는 이색 여행지를 소개한다.



심장이 출렁 감악산 출렁다리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스릴과 온몸이 오싹해지는 공포 체험. 놀이기구 얘기가 아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이야기다. 이 다리는 도로로 인해 잘려져 나간 설마리 골짜기를 연결해 둘로 나뉘질 뻔한 감악산을 온전한 하나의 것으로 연결해주고 있는데, 감악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화를 이뤄 빼어난 조경미를 자랑한다.

하지만 감악산 출렁다리가 유명세를 탄 이유는 따로 있다. 주탑이 없는 길이 150m의 다리 위를 걸을 때마다 위아래로 출렁거려 심장이 쫄깃하게 만들기 때문. 그것도 모자라 바닥으로는 45m 아래의 골짜기가 그대로 내려다보인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러오고 난간을 붙잡은 손과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지만 한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SPORTS1*

📍 위치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38

☎ 문의 031-950-1938

2022학년도 8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도전! 나도 Sporter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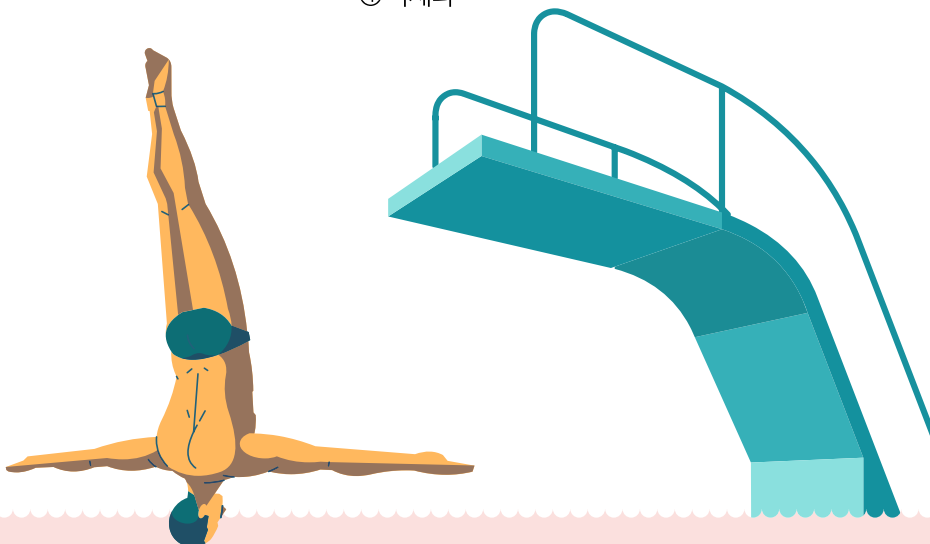
<스포츠원> 8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스포츠원> 8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1 대한체육회가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 정부 원년에 학교체육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및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7월 29일에 진행한 포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 ② 2022 생활체육진흥포럼
③ 2022 스포츠클럽진흥포럼 ④ 2022 체육동호회진흥포럼

- 2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다이빙 선수 최초로 결선 진출,
2020 도쿄올림픽 4위 등의 기록을 세운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박태환 ② 우하람
③ 양학선 ④ 박세리



3 규격화된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공을 놓고 큐(Cue)라고 부르는 막대기로 쳐서 룰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illegible]

4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은 규칙적인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로 만든 몸을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 ① 사진관촬영 ② 인생샷찍기
 - ③ 인증샷찍기 ④ 바디프로필

문제 해결

TIP

1번 힌트

문제 속에 정답이?

학교체육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

4번 힌트

‘바디(Body)’와 ‘프로필(Profile)’의 합성어

위의 단어를 줄이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정답 제출하기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9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8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9월 9일)

7월호 정답자

김*중(6746), 김*주(6008), 조*은(1776), 이*임(7498), 이*렬(5050),
김*숙(6555), 김*희(8489), 박*진(2840), 유*주(8015), 전*욱(0766)

SPORTS1 NEWS

대한체육회

2022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대한체육회가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 사업의 일환인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은 개도국 선수단을 국내에 초청해 우리 선수단과 합동훈련, 친선경기를 통한 기술 공유로 참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체육회는 2022년 야구, 탁구, 근대5종, 루지 등 8개 종목 10개국 15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해 합동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8월에는 몽골 탁구 국가대표 선수단과 개도국 근대5종 선수단을 초청해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먼저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강동훈 감독이 지도하는 몽골 탁구 선수단이 방한해 경기대학교 선수단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세계 탁구 강국인 우리나라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통해 몽골 선수단은 기술 및 전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네팔,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근대5종 선수단이 우리나라를 찾아 한체대 및 전남 해남에서 우리 선수단과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국내대회 참가를 통해 실전 경기 감각을 익혔다. 최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근대5종은 2014년부터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사업을 통해 3개국에 우리 선수단의 훈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 ODA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국제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업으로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 정,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등 3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 우상혁·수영 황선우 '특별 관리' 돌입



© 대한육상연맹

© 대한수영연맹

대한체육회가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국군체육부대)과 남자 수영 자유형의 황선우(강원도청)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이들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기초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세계 제패를 눈앞에 둔 유망주들이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을 거쳐 세계와 맞서 싸울 만한 한국의 간판으로 성장한 두 선수를 2024 파리올림픽 '스페셜 케어'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후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육상, 수영 종목에 일괄 지원하던 훈련비와 별도로 우상혁, 황선우에게만 사용하도록 용처를 명확하게 정한 지원비를 제공한다. 또 우상혁과 황선우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해 실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 파트너를 전담팀의 정식 일원으로 승격했으며, 기존에 배정된 국외 전지훈련비 외에도 국외 체재비의 일부를 대한체육회가 부담하는 특별 후원도 진행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기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초강세를 유지해 온 종목을 '톱10', 앞으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이 가능한 종목과 전통의 메달박스 종목을 'G1', 아시안게임 메달 종목을 'G2', 프로 위주 종목을 'G3'로 분류해 지원을 달리한다. 올해 'G1'으로 분류된 우상혁과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메달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톱 1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2022 AUGUST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스포츠인권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스포츠인권 우수사례 공모전은 스포츠인권 보호 및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체육인의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사례 공유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은 스포츠 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체육지도자, 인권지킴이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별 주제에 맞는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2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스포츠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목적의 적절성과 우수사례의 창의성’ 등이다. 수상자는 분야별 3명씩 총 9명을 선정한다. 최종 수상자는 개별로 공지하게 되며 우수사례는 스포츠 인권의 날 공식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복 77주년 기념 전 국민 달리기 행사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4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청와대부터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국민 1,000여 명이 함께 달리는 ‘함께 그리는 태극기’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요원과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관리사가 함께했다.

이번 달리기는 8km 단일코스로 진행됐다. 먼저 올해 국민에게 새롭게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부터 광화문광장까지 1km는 모자를 활용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며 걷었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까지 7km는 다 함께 달리는 비경쟁 행사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생활체육 참여 확산 목적으로 치러진 만큼 독립 유공자 후손 30여 명, 인플루언서 안정은 러닝 전도사, 사격 진종오 선수를 비롯한 메달리스트들이 함께했다. 특히 달리기 코스는 걷기 구간 종료 후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시청광장과 송례문, 서울역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까지로, 참가자들은 변화한 도심 속을 달리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기흥 회장은 “올해 광복 77주년을 맞아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생활체육 현장에 뜨거운 함성과 열기를 불어넣어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PORTS1 NEWS

시도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해양스포츠체험 캠프 실시



경상남도체육회는 7월 24일 통영시 일원에서 경상남도 내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또바기체육돌봄 해양스포츠체험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해양스포츠체험 캠프는 다문화 학생이 수상 안전교육, 생존수영 교육, 공동체 해양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기르고 사회 적응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상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 활동 여건 조성과 다양한 스포츠 체험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체육회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체육 교류 확대



경상북도체육회는 7월 29일 경북체육회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체육회와 체육지도자 파견 등 다양한 교류 확대에 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경북체육회는 김하영 회장을 비롯해 이목 사무처장과 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체육회는 아흐마드 사에푸딘(Ahmad Saefudin)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경상북도에서 파견된 체육지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2018년 인도네시아 전국체육대회 수도자카르타를 제치고 첫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었고, 2021년 체전에서는 2연패 달성에 크게 공헌한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증액, 지속적 파견 및 종목 확대, 복리후생을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 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전지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등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담았다.

김하영 경북체육회장은 "2010년부터 서자바주와의 체육교류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비대면 협정체결로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3년 만에 대면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체육회 체육영재선발대회 개최

전라북도체육회는 체육영재선발대회를 8월 22일부터 닷새간 임실에서 예선을 시작으로 본선과 결선을 순차 진행한다. 체육영재선발대회는 전라북도체육회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 도입해 호응을 얻은 대회로 올해 2회째다. 이 대회는 학교 운동부 소속은 아니지만, 운동에 재능이 있는 숨은 체육 인재를 발굴해 전북 체육을 이끌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 자격은 도내 초등학생(3~6년)과 중학생(1년) 중 기초체력이 우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운동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전년도 대회에서 체육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예선에서는 기초체력과 운동 체력 측정을 진행하며, 본선에서 운동 체력과 신경반응, 운동 협응능력 등을 체크한다. 또 결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스포츠 수행 능력과 전신 근력 등을 평가한다. 우승자에게는 학년별로 체육장학금 등이 지원된다.

2022 AUGUST

시도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어르신 생활체육’과 함께 새로운 청춘 시작



전라남도체육회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한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최근 대한체육회의 2022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 공모에서 어르신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 운영으로 2,300여만 원, 어르신 방송콘텐츠 제작 송출 사업으로 4,500여만 원 등 총 6,92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장흥군체육회의 생활체조, 영암군체육회 요가, 2021년 목포시체육회의 그라운드 골프, 광양시체육회의 게이트볼, 화순군체육회의 시니어로빅, 강진군체육회의 생활체조, 장성군체육회 줌바댄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영상물 제작 및 방송 송출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에 전라남도체육회는 2022년에도 장흥군(그라운드골프), 완도군(에어로빅), 진도군(탁구)을 선정하는 등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을 통해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은 오는 9월 중 본방송 1회, 재방송 2회 등 LG헬로비전 호남방송(전남 지역 채널 25)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경기도체육회

‘2022년도 경기도 런데이 투어’ 스타트



경기도체육회는 7월 31일 스포츠와 관광이 함께하는 ‘2022년도 경기도 런데이 투어’를 시작했다. ‘런데이 투어’는 가이드 러너와 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달리며, 러닝 코스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했다. 가족, 연인 등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시니어 계층의 신청우대 등을 통해 전 연령대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참가비가 없고 일반 러닝, 쓰담 달리기(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이벤트 러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몸과 마음만 있다면 별다른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달리는 경기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더없이 좋은 운동이기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다양한 참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준비기획단 본격 가동



SPORTS1 NEWS

시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오는 10월 28~30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6회 도민체육대회' D-100일을 맞아 준비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7월 20일 도민체전 준비 기획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준비기획단은 대회 운영, 경기 운영, 식전 운영, 대회 지원 등 총 4개팀 3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도민체전은 초·중·고등학교부, 일반부, 장애인부로 나누어 총 52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전문체육·생활체육 간의 유기적인 연계로 선수환의 스포츠 활동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민체육대회를 통해 지역단위 스포츠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체전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는 '읍·면·동 대항경기'는 민속경기를 포함해 11종목이 펼쳐진다. 읍·면·동에서는 3개 이상 종목에 참가할 수 있으며, 내외 제주도민의 화합을 위한 재외도민의 경기도 족구,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경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폐회식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사생대회, 스포츠문화 이벤트 행사, 지역홍보, 지역홍보관 등 체전을 지역문화의 공연장으로 알차게 꾸려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Beginner 궁도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통 종목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초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비기너(Beginner) 궁도 대회'가 8월 7일 부산 사직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성인부 90명과 학생부 60명의 많은 초보 동호인이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가 치러졌다.

올해 처음 개최된 Beginner 대회는 부산광역시의 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동하는 미등록 동호인과 운동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의 초보 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높여 꾸준한 스포츠 활동과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부산시체육회가 새롭게 기획했다.

궁도협회 관계자는 "종목 특성상 성인이 주축을 이루는 종목임에도 학생부 참가자 수가 많아 궁도 종목의 저변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고, 초보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대회라 뜻깊었다"고 말했다.

부산시체육회는 8월 27일 Beginner 파크골프 대회와 10월 3일 Beginner 배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산 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체육회

'사랑의 헌혈' 나눔에 시체육회 직원 동참



광주시체육회는 8월 2일 오전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이는 헌혈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웃 사랑 실천과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헌혈자 수 급감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체육회 직원들이 앞장서 소매를 건넸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20년에도 임직원, 체육지도자들이 헌혈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개인 건강 등을 살피며 단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2022 AUGUST

회원종목단체

대한민국농구협회

18세 이하 여자 농구대표팀, 아시아선수권 최종 명단 확정



대한민국농구협회는 8월 5일 청소년 여자농구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2022국제농구연맹(FIBA) U18 여자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최종 엔트리를 선발했다. 최종 명단에는 지난해 U19 여자농구 월드컵에서 활약한 박진영(삼천포여고)과 박성진(춘천여고)을 비롯해 올해 U16·U17 대표팀의 주축이었던 허유정(분당경영고), 고현지(수피아여고), 정현(송의여고), 김솔(화봉고) 등 12명이 포함됐다.

방지윤 감독이 이끄는 U18 여자 농구대표팀은 8월 12일 소집, 담금질에 돌입했다. U18 여자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 방갈로르에서 열리며, 상위 4개 팀에 세계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대한바둑협회

2022 희망드림바둑교실 운영



대한바둑협회가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 바둑의 흥미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둑 교육을 통한 복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고자 '2022 희망드림바둑교실'을 운영한다. 대한바둑협회는 2018년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보급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둑교실을 열어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범위를 넓혀 노인시설 및 장애인 시설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바둑교실은 전국에 위치한 취약계층 시설에 전문 바둑강사를 파견해 매주 2-3회 수업, 총 40회 차를 진행한다. 모든 시설에 바둑 강의에 필요한 바둑 용구를 무료로 보급하며, 전자 교재 및 전자 교구 태블릿PC를 지원해 수업의 질과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대한바둑협회는 이번 바둑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시설 공모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시설 30곳을 선정했다. 지역아동센터 24곳, 노인시설 4곳, 장애인시설 2곳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76개팀 참가' 울진서 열린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성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울진군과 함께 주최한 2022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7월 30일에 울진 죽변 야구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진 죽변 야구장에서 왕돌초, 금강송, 왕피천 3개 리그의 결승전이 각각 펼쳐졌다. 왕돌초 리그 결승전은 서울 화곡초가 서울 효제초를 6-3으로 물리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화곡초 민서준이 결승전 승리투수 포함 3승과 0.563의 타율을 기록하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금강송 리그 결승전은 광주 수창초가 대구남도초를 6-2로 꺾고 수창초 노찬민이 0.600의 타율과 2승을 기록하며 최우수선

SPORTS1 NEWS

회원종목단체

수가 됐다. 마지막으로 열린, 왕피천 리그 결승전은 서울 고명초가 충북 석교초를 5-1로 누르고 정상에 오르며 고명초 장민재가 결승전 승리투수 포함 대회 3승으로 최우수 선수가 됐다.

대한럭비협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 성료



대한럭비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럭비협회가 주관하는 '제33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16세 이하부 12팀, 19세 이하부 12팀이 출전했다. 16세 이하부는 7인제 리그&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돼 12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 풀리그전을 통해 1~3위를 정하고 1위(4개 팀), 2위(4개 팀), 3위(4개 팀)이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렸다. 경기 결과 충북 청주 남성중학교 럭비부가 1995년 럭비부 창단 이래 첫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15인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19세 이하부에서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서울사대부고) 럭비부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대한럭비협회는 한국 럭비 저변 확대와 '인지 스포츠'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대중들이 '럭비'라는 스포츠 종목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대회 기간 중 경기장 관중석을 개방했다. 더불어 대회 전 경기를 '대한럭비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꿈나무 하계 합숙 훈련 개최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미래 유망주 육성을 위해 꿈나무 하계합숙 훈련을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진행했다. 지도자 6명, 전담 관리 요원 2명과 미래 유망주 선수 36명 등 총 4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초체력과 포지션별 훈련, 심리교육, 체격체력 측정 평가와 대한체육회 시행 교육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을 받아 올해 1월 전국 초·중학교 팀에 8,000만 원 상당의 라켓과 공을 전달했다. 이번 꿈나무 하계 합숙 훈련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지원, 대한체육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오늘부터 갯생살기 시작합니다

갯생은 GOD(신)+人生(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대단하고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말할 때 접두어처럼 사용되는 갯을 인생에 붙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으로 갯생살기 프로젝트를 실천해보세요!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
더 건강하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힘 **스포츠7330**

